

AUO, 미국 LCD 특허소송 승리

ITC, 톰슨 라이선싱 특허 침해하지 않아 ... ChiMei는 일부 폐소

세계 4위 LCD(Liquid Crystal Display) 패널 생산기업인 타이완의 AUO(AUOptronics)가 미국기업 톰슨 라이선싱(Thomson Licensing)과의 특허 분쟁에서 승리했다.

타이완 중앙통신(CNA)에 따르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최근 예비판결을 통해 AUO가 톰슨 라이선싱이 주장하는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확인했다.

톰슨 라이선싱은 2010년 10월 AUO의 모니터와 TV 디스플레이가 자사의 고유한 기술을 침해했다며 AUO 생산제품의 미국시장 진입 금지 등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AUO는 타이완 증권거래소(TWSE) 공시를 통해 “미국 무역위원회의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는 톰슨 라이선싱이 또 다른 타이완의 LCD 생산기업 치메이(ChiMei)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 소송에 대해서는 일부 기술 침해가 인정된다고 1월 결정한 바 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2/06/18>